

담양군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선정 20억 확보

화장실, 주차장 개·보수 등 추월산지구 체류형 관광지

담양호 국민관광지가 전남도 공모 '2024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에 선정돼 낡은 기존 시설의 정비와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2024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전남도 내 관광지 27개소, 관광특구 2개소 총 29개소 중 3곳을 선정해 노후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완·재생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담양호 국민관광지(추월산지구)'는 1977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47년이 지난 노후 관광지로, 매년 추월산과 담양호 용마루길을 중심으로 약 4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담양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오래된 화장실과 주차장을 개·보수하고, 야간 불거리를 추가해 추월산 지구에 건립 예정인 국제명상센터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인 담양호 관광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국산 쌀 소비 촉진반 모집 화순군, 22일 개강 5회 진행

화순군은 8일 국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 국산 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반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쌀 소비 촉진반은 22일 개강, 5월 8일까지 총 5회 3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쌀누룩 발효의 원리와 발효 미생물에 관한 이론, 일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쌀누룩, 쌀 음료, 현미 요구르트, 쌀 소금, 쌀 잼 등의 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 쌀 소비에 관심 있는 교육생 2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061-379-5434)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우리 쌀의 다양한 활용 방법 확산과 소비 촉진의 밑바탕이 되길 바라며, 국산 쌀의 소중함을 알고 올바른 쌀 소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봄철 도로시설물 일제정비 영광군, 간선도로 31개 노선

영광군이 2024년 영광 방문의 해·제63회 전남대전 및 제32회 전남장애인체육회를 맞아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잦은 강우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에 나섰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위암국도 2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및 군도 등 주요 간선도로 31개 노선을 대상으로 5월3일까지 포트홀(도로 파임), 배수시설 퇴적토, 도로표지판, 도로노면정소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연초 연이은 적설 및 강우로 인해 예년보다 많은 도로 포트홀이 발생되어 긴급 복구 추진 완료했으나 통행에 불편한 구간들을 우선 재점검해 도로 긴급보수를 불편사항 예방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봄철 도로정비를 통해 기능이 저하된 주요 간선도로시설물을 정비해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긴급보수 등 불편사항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무료 건강검진 비용 지원 나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나주시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및 영유아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비용을 연중 지원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생후 14일~71개월의 '영유아 검진', 20~64세의 '일반건강검진', 66세 이상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 등으로 나뉜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의 경우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 의료수급권자 검진 대상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2011명이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1062명으로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11개 항목을 검진한다.

생애 전환기검진 대상자는 949명이며 신체 계측, 골밀도 검사(66세 여성), 인지 기능 장애 검사 등을 받아볼 수 있다.

나주시 관내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94명으로 8단계의 월령별 시기에 맞춰 문진, 신체 계측, 발달평가, 구강검진 등 5개 분야 24개 항목을 검진한다.

수검자·검진 의료기관 조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수검자가 물리는 연말을 피하면 예약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 향상을 위한 SNS와 문자, 우편 발송 등 건강검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영광군이 겨울철 잦은 도로 제설작업과 강우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 일제 정비를 펼친다.

영광군 제공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11일까지 군청 방문 제출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신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담양군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자격은 담양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필요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담양군청 참여소통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급업체 모집은 지난 1회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품목인 임산물,

신문 구독 서비스를 포함, 그 외 지난해 선정 품목 중에서 선정한다.

군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담양군은 지난해 총 4차에 걸쳐 담양군 대표 농특산물을 포함해 각종 체험 상품으로 구성된 43개 품목, 49개 업체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한과만들기 체험, 곤충 체험,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관광·문화·체험 연계 상

품을 발굴하여 담양 관계인구를 확대하고자 했다.

공급업체 접수는 11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누리집(https://www.damy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해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답례품이다"며 "특색있고 뛰어난 품질의 답례품은 장기적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관광객 증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군남에 찰보리 어울터 개관 영광군, 융복합산업 랜드마크

영광군은 지난 5일 군남면 포천리 지내 들 일원에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랜드마크 '영광 찰보리 어울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개관식은 강종만 영광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정진삼 영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을 비롯하여 기관 사회단체장, 농업인단체 및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된 '영광 찰보리 어울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군남면 포천리 지내 들 일원에 건축면적 718.5㎡, 연면적 864.1㎡ 지상 2층으로 신축되었으며, 1층은 찰보리 활용 주민교육체험실과 농·특산물 홍보실, 2층은 회의실 등의 주민복지공간을 갖추었다.

이번에 개관한 '영광 찰보리 어울터'는 찰보리 산업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체와 지역공동체 간 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해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대표 건물로 공익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 찰보리 어울터 준공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신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등 관계자들과 농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국 유일 보리산업특구인 영광군의 찰보리산업을 내실 있게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전남농기원, 중남미 커피 유전자원 도입 'K-커피' 선도

열대 농업센터·코스타리카 3자 협약...디지털농업기술 전수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코스타리카에서 중남미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코스타리카 커피연구소(ICAFE)와 커피 연구 교류 등을 위한 3자 간 이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커피 유전자원 교류 △협력 연구 프로젝트 발굴 △협력 훈련 프로그램 실시 △커피 재배기술 교류 △인력 교류 및 회의·워크숍·세미나 등의 교류 사업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담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중남미 커피 유전자원 도입을 통해 전남지역 기후에 맞는 품종선발을 추진하며, 코스타리카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기반 디지털 농업 기술을 전수 받는다.

연구용 커피 품종은 검역 등 절차를 밟아 올 하반기부터 들여오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각 기관 연구 역량을 결합해 재배기술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코스타리카에서 중남미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CATIE), 코스타리카 커피연구소(ICAFE)와 커피 연구 교류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도농기원 제공

다. 이번 기술협력도 재배지 기술과 유전자원 도입을 위해 이뤄졌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MOU가 협약을 넘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남이 k(케이)-coffee를 선도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